

2020 추 석 예 배 순 서

금년 추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해도 겪어보지 못한 긴장마와 연이은 태풍,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특히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내몰리면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어려울수록 바른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찬 송 / 301장

목 도 / 시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 원 / 인도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모진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당하는 전염병과 기후 변화로 오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327장

대표기도 / 가족 식구 중 한 사람이나 인도자가 기도합니다.

1. 우리 가정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2. 자연 재해가 일상화 된다 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소서.

3.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크게 부흥하게 하소서.
4.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주시고, 화합하고 하나되게 하소서.

성경봉독 / 민수기 13장 25~33절

25.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
 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
 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
 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
 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
 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 씀 /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으로 얼어붙
 게 하더니 처음 겪어보는 3개월의 장마, 한 달에 세 번이나 들어 닥친 초강
 력 태풍,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발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낙심하기 쉽고 주저 앉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2년 만에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살펴보고 오게 하
 였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은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점령
 이 불가능한 땅으로, 2명은 점령할 수 있는 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백성들

은 부정적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두 명 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I. 적극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안목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안목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영향력이 큼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목입니다. 공허하게 들리고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부정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 일이 없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공허한 것처럼 보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II.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교훈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36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66회나 찾아냈습니다. 어떤 분이 1년이 365일이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윤년은 366일이니 윤년의 2월 29일 그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명이라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겁에 질려 있었다면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겁에 질려 있었다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노랑대첩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 신앙, 큰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III. 오늘의 현실도 믿음의 안목으로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40일간 다니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뒤 지난 2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

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을 가르고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정말 자세하고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도 보통이 아니라 초강력 태풍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금년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시대의 주인공들을 찾으시는 시험을 치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벌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경력이나 스펙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단일한 믿음이 아니라 모험적 믿음을 보십니다.

기 도 / 인도자

찬 송 / 502 장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 전에
덕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 다같이

인도자가 예배 헌금 기도를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같이 하고 마칩니다.